

釜山の 舊石器文化

박 영 철

(부산대학교 교수)

장 용 준

(부산대 박물관)

- I. 自然環境 概觀
- II. 遺蹟과 遺物의 檢討
 - 1. 海雲臺區 淸沙浦遺蹟
 - 2. 金井區 老圃洞遺蹟
 - 3. 海雲臺區 中洞·佐洞遺蹟
- III. 文化相 比較檢討

I. 自然環境 概觀

부산지역에는 지금까지 세곳의 구석기유적이 알려져 있으며, 이 세곳은 모두 부산시립박물관의 발굴조사 또는 지표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유적들이다.

유적은 <표 1>에서 보듯이 모두 부산의 동쪽지역인 해운대구와 금정구에서 확인되었으며, 지질학과 고고학에서 부르는 第四紀 퇴적층 가운데서도 갈색의 점토퇴적층에서 확인된 것이 主를 이룬다.

<표 1> 釜山地域 舊石器遺蹟 地名表

遺蹟名稱	行政區域	遺蹟의 立地	時代(*)	調査機關
中洞·佐洞	釜山 海雲臺區	海岸 內陸丘陵	1992-93	釜山市立博物館
淸沙浦	釜山 海雲臺區	海岸邊	未發掘	釜山市立博物館
老圃洞	釜山 金井區	內陸丘陵	地表採集	釜山市立博物館

갈색점토 퇴적의 의미는 토양이 산화와 풍화를 겪어 갈색으로 변하였고, 퇴적물의 굳기가 매우 단단하다는 뜻이다.

토양학에서는 이러한 퇴적을 古土壤(paleosol)이라 부르며, 퇴적 당시의 기후조건은 지금 보다 많이 추웠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금은 딱딱한 표현이 되겠지만 이러한 점토퇴적을 1만년 이전의 更新世 빙하기 기후조건하의 퇴적물이라 부르고 있다.

흔히 갱신세 빙하기후를 지구 전체에 빙하가 뒤덮였던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즈음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갱신세에도 兩極지방과 高山지역(예, 알프스, 히말라야 등)을 중심으로 빙하가 존재하였으며, 그 빙하의 분포가 당시에는 지금보다 많이 추웠기에 훨씬 넓게 퍼져있었다는 뜻이 되겠다. 예를들어 지금의

북극빙하는 유럽의 스칸디나비아반도는 물론 북부 독일 일부까지도, 그리고 현재의 알라스카지역 빙하(북극빙하의 일부)는 캐나다는 물론 미국 중부지역까지도 뒤덮고 있었다.

그러면 中緯度지역에 위치한 부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갱신세 기후조건은 어떠하였는가? 빙하기동안 지구 전체에 엄습하였던 한파는 당시 기후의 일반현상이었기에 우리나라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었고, 현재보다 훨씬 낮은 기온을 유지하였었다. 이 분야 연구는 당시에 살았던 나무와 풀종류의 꽃가루조사(花粉學, Palynology)를 통하여 실체를 알 수 있겠으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 분야연구가 체계적으로 다뤄진 바가 없어 정확한 실상을 알기가 지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구석기연구가 시작되었던 충남 공주군의 石壯里遺蹟 조사 사례에 의하면, 비교적 간헐적인 확인사례이지만 2만년 전후에도 그곳에는 소나무(*Pinus* sp.), 오리나무(*Alnus* sp.), 목련(*Magnolia*) 등이 살았었기에 당시에 온대기후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지만, 분석된 꽃가루 종류와 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기에 지금으로는 정확한 기온차이를 언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빙하기에도 우리나라 기후상태는 쉰지구의 한냉화로 지금보다 추웠던 것은 사실이나 넓은 의미의 온대성기후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빙하기 동안의 地形은 지금과 비교하여 많이 달랐었다. 가장 뚜렷하였던 현상은 지구상의 막대한 水量이 눈 또는 빙하형태로 대륙에 축적되어 해수면 변화와 해수면 저하현상을 꼽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현재 水面下에 있는 깊이 200m 미만의 大陸棚 지역이 2만년 전후에는 대부분 陸地化하여 예를 들어 서해(평균 깊이 70m)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와 중국이 連陸되어 있었고 또한 현재의 대한해협(최저 깊이 200m 내외)은 좁은 水路가 형성되어 있거나, 군데군데 湖沼형태가 존재하였었다. 이것을 지리학

과 고고학에서는 해양의 陸地化라고 하며, 당시의 대륙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크고 광활한 형태이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육지면적의 확대는 인류의 이동과 문화의 전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인류 뿐만 아니라 동물의 이동과 이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부산 해운대지역의 해안선은 빙하기 때에 현재 보다도 훨씬 낮았으며, 지금의 부산주변 경관은 1만년 이래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형성되었다.

해양의 해안선 변화와 마찬가지로 육지에서도 빙하기 동안 지형변화를 겪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江岸段丘의 형성이라는 것이다. 빙하기 동안 양극지방을 중심으로 빙하의 확산이 진행되는 동안 온대지역에서는 降雨量 증가로 江의 水量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의 강들은 강바닥의 침식이 많이 진행된 것이기에 빙하기 때 보다는 江幅이 많이 좁아진 결과이지만, 당시에는 강바닥 침식이 현재와 같지 않아 강폭이 훨씬 넓고 또한 물의 양도 컸었다. 따라서 현재 강가에 쌓인 모래, 자갈 등의 퇴적물을 現在의 江岸段丘 또는 河岸段丘라고 부를 때, 1만년 이전의 강폭이 넓었을 때 강가에 쌓인 모래, 자갈퇴적물들은 갱신세의 古河岸段丘라 부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빙하기 동안 형성된 강안단구들은 현재의 강안보다도 내륙쪽에 치우쳐 분포할 수 밖에 없었으며, 대체로 갱신세 강안단구의 해발높이 기준은 당시에 침식이 덜 진행된 상태였기에 現生の 것 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구석기인이 활동하였던 갱신세 동안의 부산지역 자연환경은 지금과 같은 온대성기후를 基調로 하지만 현재보다 훨씬 추운 기후이었으며, 구석기시대와 맞물리는 2만년 전후의 해안선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일본 섬지역들과 부분부분 連陸되어 있어 인류와 동물의 이주·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었다.

II. 遺蹟과 遺物의 檢討

부산지역 구석기시대 유적은 인근 경남지역 유적들이 낙동강 여러 支流를 끼고 산재하여 있는 특징이 있는데 비하여(그림 1 참조), 부산의 경우 해안을 끼고 있던지 또는 해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은 부산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것이지만,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활동영역연구 측면에서는 경남 낙동강 中上流에 위치한 유적들과는 서로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알려진 세곳의 유적들 가운데 발굴을 통하여 문화성격, 즉 文化相이 알려진 곳은 海雲臺 신시가지 조성단지의 中洞과 佐洞遺蹟이며, 이 두지점은 서로 300m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해안과는 2km 이내 근거리에 있다. 따라서 遺蹟과 遺物 檢討는 中洞과 佐洞 두지점의 기록에 集中될 것이고, 지표조사를 통하여 알려진 海雲臺區 淸沙浦遺蹟과 三韓時代 古墳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金井區 老圃洞遺蹟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을 기록하는 정도에 머물게 되겠다.

1. 海雲臺區 淸沙浦遺蹟

遺蹟의 지리분포 類型에는 해안유적형태라는 것이 있는데 海雲臺區 淸沙浦遺蹟은 바로 이 분류의 典型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해안가 유적들의 立地를 보면 海蝕과 Karst현상에 의한 해안동굴 형태가 주로 존재하지만, 또다른 立地형태로는 따뜻한 시기 즉 間氷期동안 해수면이 상승하였을 때에 형성된 古海岸段丘, 즉 옛날 해변가에 해당하는 유적들도 자주 발견된다.

淸沙浦遺蹟은 현재의 해수면보다도 약 20m 높이의 경사(약 20~30도) 비탈면에 노출된 상태로서 알려진 유적이며, 아직까지 발굴이 이뤄지지 않아 층위구성이라든지 유물성격이 알려진 바는 없다.

지표조사를 통하여 수습된 유물로 보면 후기구석기시대 석기 재질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泥岩 또는 혼펠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몸돌(石核)에서 떼어낸 격지(剝片)들이 小形이고 매우 얇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점은 청사포유적이 다른 지역에서 알려진 후기구석기 문화상보다도 더욱 발전된 양상을 띠는 점을 말하며, 달리 표현하면 시기는 비록 다른 후기구석기 유적들 보다도 뒤늦지만 시간의 흐름에 변해나가는 문화의 연속 고리부분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사포유적에서 채집된 대표적 유물로는 찌르개형 격지(Point type flake, 실측도 1-1, 泥岩, 길이×너비×두께 52×44×14mm)와 몸돌(Core, 실측도 1-2, 泥岩, 98×75×45mm) 각 1점이 있다.

2. 金井區 老圃洞遺蹟

현재 노포동지하철 차량기지의 동남쪽 야산구릉에 위치한 노포동유적은 1985년 부산시립박물관과 부산대학교박물관의 연합 발굴로 조사되었다. 발굴 당시의 조사상황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한시대 古墳조사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조사기간 동안 수습된 수점의 석기가 구석기시대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갖게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청사포유적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상태이며, 층위관계라든지 유물상에 관한 구체적 상황은

全無한 상태이다.

노포동유적의 주거지와 고분들은 갈색점토층을 파고 들어간 것이었다. 점토층의 토양학적 특성은 육안관찰로서도 근거리의 해운대 中洞·佐洞遺蹟 점토층과 유사성을 갖기에 동시기 퇴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포동에서 수습된 유물은 泥岩으로 만들어진 中形의 격지석기 2점이 알려져 있으며(참고문헌 3, p.41, 그림 8의 1·2), 이 유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

톱니날석기(Denticulate, 실측도 2-1, 암질 砂岩, 길이×너비×두께 71×63×16mm) : 모서리가 많이 무디어진 형태의 정사각형 석기로서 準圓形을 연상케 하는 두터운 격지 도구이다. 유물을 정위치에 두고 관찰하였을 때 左邊 전체와 上端 一部에 톱니날形 잔손질이 加하여졌다. 톱니날석기는 후기구석기유물 가운데 자주 관찰되는 것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小形의 것 또는 밀양 고례리의 경우와 같이 돌날(blade)을 사용한 사례가 더 일반 사례에 속한다.

격지제작 수법상의 측면에서 볼 때, 격지의 때림면이 매우 좁아져 線形을 이루고, 격지를 얇게 만들기 위하여 下面과 左側 下部를 넓게 떼어낸 점은 手法상의 발달로 볼 수 있다.

돌날격지(Lame, 실측도 2-2, 泥岩, 80×39×22mm) : 逆 사다리꼴 모양의 격지로서 길이가 너비의 2배 이상이기에 돌날격지로 부르고 있다. 인위적인 잔손질을 加한 흔적은 없으나 左邊에는 中·上部를 중심으로 사용과정에서 생겨난 불규칙 잔손질이나 上·下面에 거의 연결되다시피 나타나 있다.

1) 유물의 관찰기록 방법은 <참고문헌 1>을 참고하기 바란다.

돌날의 때림면에 해당되는 下端部 길이 2cm 가량 부분에는 上·下面 전체에 불에 그을린 듯한 흑갈색 반점이 넓게 퍼져 있다. 이러한 色相의 차이는 암질의 자연색깔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불에 그을려진 것인지 또는 석기를 裝着하기 위하여 Tar性 접착제를 사용한 결과인지 여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하겠다.

위끝날이 직선형에 가까운 석기를 필자는 刃部를 사용하였던 석기로 부른 적이 있다(참고문헌 1). 이러한 경우 위끝날 刃部 자체에 인위적 잔손질이 加하여지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며, 따라서 하단부 반점이 Tar性 물질일 경우는 나무에 장착하여 左邊의 날을 사용하였던지 또는 상단끝 刃部를 사용하였던지 어느 한 경우에 속하게 될 것이다.

노포동유적의 점토퇴적상황과 유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유적은 해운대 中洞·佐洞 유물상과 유사점이 있다. 이 점은 노포동도 중동·좌동과 마찬가지로 경남 밀양시 古禮里遺蹟 上層部 유물과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뜻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참고문헌 4).

3. 海雲臺 中洞·佐洞遺蹟

이 2개 지점의 유적은 서로 근거리에서 위치하고 유물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데 편리하다 하겠다. 이 유적의 발굴에 관한 概報 성격의 글은 2-3회 발표가 있어 왔고, 내용중에는 점토퇴적 양상과 유물성격에 관한 것도 언급된 바 있었다(참고문헌 3, 5, 6).

地形·堆積 : 東·南海岸이 마주치는 海雲臺에서 內陸 2km 지점에 위치한 이 두 유적은 300m 근거리에서 서로 위치하며, 堆

積과 文化양상도 同一하기에 함께 다루도록 한다. 이 유적들은 해운대에서 가장 높은 菴山(m.s.l. 634m)이 급경사를 이루고 내려오다가 10. 내외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盆地形 산비탈에 南向(m.s.l. 中洞 47m 佐洞 40m)으로 位置하며, 이 분지의 한 가운데는 조그만 개천이 흐르고 있다. 이 일대의 Boring 조사에 따르면 기반암 위로 시대미상의 자갈모래층(砂礫層)이 있고, 그 위로는 습지성의 泥층(泥層), 그리고 이 위로 산비탈 崩積層(colluvium)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遺蹟의 堆積은 兩지역이 모두 表土耕作層(I)·褐色粘土層·砂質粘土層의 順이 基本이며, 褐色粘土層은 색깔에 따라 佐洞은 II~V 그리고 中洞은 II~IV層으로 細分하고 있다. 이 褐色粘土層은 他 지역의 後期구석기유물 포함 점토층과도 비교되는 퇴적으로서, 遺物出土部分은 흔히 soil wedge로 불리는 T字 文樣帶를 중심으로 上部에 位置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 사실은 中洞과 佐洞 유물들이 褐色粘土堆積期の 後半에 屬한다는 점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中洞遺物相 : 유물이 확인된 부분은 1~1.5m 두께의 전체 점토층 가운데서 中上部의 30~50cm부분(II層)이며, 유물 構成相은 수점의 몸돌석기(Core tools)와 다수의 격지석기(Flake tools)를 망라하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石器 構成은 자갈돌을 사용한 찍개(Chopper), 도끼날 타제석기(Axe type, 실측 3-1), 몸돌성격의 양면석기(Biface, core type), 좀돌날몸돌(Micro-blade core, 실측도 3-2)과 좀돌날(Micro blade), 綾形의 돌날 多數(Lame à crête), 두께가 비교적 두터운 돌날(단면이 사다리꼴, Blade), 돌날(Eclat laminaire)을 사용한 모서리형 새기개(Burin d'angle, 실측 3-3)와 밀개(Grattoir, 실측도 3-4), 上端을 의도적으로 切斷하여 잔손질을 加한 돌날석기(Lame à truncature), 다수의 톱니날석기(Denticulate), 양면대칭형으로 만든 뚜르개(Bifacial point or

drill, 실측도 3-5) 등이다. 이 유물전체가 몇 개의 文化層으로 구분될 유물들인지 여부는 앞으로 발간될 보고서를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전반유물구성상은 후기구석기 후반부 양상(돌날석기, 새기개, 줌돌날 등)을 잘 대표하고 있다.

밀양 古禮里遺蹟의 上·下部 2개 遺物群層 가운데 上部層에서도 그러하지만, 中洞 遺物群 가운데는 異形으로 판단되는 2點의 석기가 포함되어 있다. 부채꼴모양의 兩刃打製석기(또는 도끼날 석기, 실측도 3-1)와 돌날형 격지를 사용한 주걱形 석기(Spatula form, 실측도 3-6)가 그러한 경우이며, 후자 경우는 직선의 위끝 날과 左右邊 上端에 톱니날 잔손질을 加한 것이 특징이다.

佐洞遺物相 : 이 유적의 유물상은 中洞과 脈을 같이 하고 있으나 遺物構成相이 매우 單調롭다. 대표유물로는 몸돌(Core)과 돌날형격지(Eclat laminaire)이며, 이 가운데는 居昌 壬佛里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는 잔손질된 大形の 方形격지(Retouched flake, 실측도 3-7, 114×106×30mm) 1點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中洞과 佐洞의 遺物群은 일단 후기구석기유물 양상으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다. 줌돌날몸돌사용 傳統의 지속, 돌날 또는 돌날형격지를 사용한 석기의 제작, 후기구석기 典型 양식에 속하는 새기개(Burin d'angle)와 切斷形 돌날석기(Lame à troncature) 등은 해운대지역 유물의 代表相이라 하겠다. 여기에 더하여, 一部の 異形석기들은 이 지역 유물의 時代性과 生活相을 말하여 주는 새로운 자료로 볼 수 있다.

Ⅲ. 文化相 比較檢討

부산지역 구석기 유물 편년은 유물을 포함한 褐色粘土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갈색점토퇴적은 후기유물을 포함한 경우 粘土層의 두께와 점토층의 文樣帶를 중심으로 上·中·下部로 大別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부산·경남의 갈색점토 퇴적 中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이른 퇴적 遺物은 古禮里 下部遺物群으로서, soil wedge가 生成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堆積으로 보아 褐色粘土層의 상부 유물은 中洞(Ⅱ層)과 佐洞(Ⅱ層)이 여기에 속하며, 점토층의 T字문양대(soil wedge) 上部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을 포괄하는 구석기시대 文化 特徵은 가장 이른 古禮里 下部遺物은 中·小形의 돌날제작기법(Blade industry)을 배경으로 한 文化라는 것이며, 特徵유물로는 文化의 變化相을 지시하는 찌르개류(Point types)와 슴베형 석기들(Tanged objects)이 포함되어 있다.

古禮里 上部遺物에는 下部와 같은 Blade industry이면서도 廣幅의 大形돌날이 앞시기와 對備되어 출토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以前 時期에 事例가 없던 異形石器(大形홈날석기, 반월형석도를 연상시키는 등갈 등)와 砥石들이 포함되어 있어 生活의 變化相을 느끼게 한다.

이 단계는 바로 海雲臺 中洞·佐洞유물군과 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佐洞의 잔손질된 대형격지 유물은 거창 壬佛里와도 관계가 있기에, 文化的으로는 해운대유물의 一部傳統이 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참고문헌 2).

<참고문헌>

- 1) 朴英哲
1998, <日本 前期·中期舊石器와 遺物構成相 研究> 《嶺南考古學》第23號, 嶺南考古學會, pp.1-25.
- 2) 朴英哲
1999, <嶺南地域 後期舊石器的 文化相과 編年> 《嶺南地方的 舊石器文化》第8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pp.121-129.
- 3)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研究叢書》第1冊, 190 p.
- 4) 서영남·김혜진·장용준
1999, <嶺南密陽市 古禮里遺蹟 後期舊石器文化> 《嶺南地方的 舊石器文化》第8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pp.47-63.
- 5) 하인수
1993,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지역 발굴조사 개보> 《第36回 韓國考古學大會 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pp.502-509.
- 6) 河仁秀
1999, <海雲臺 中洞·佐洞 舊石器文化> 《嶺南地方的 舊石器文化》第8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pp.65-81.

<실측도면>

<그림 1> 부산·경남지역 구석기유적 분포도

<그림 2> 후기구석기 유물을 포함한 褐色粘土層의 模式圖

<실측 1-1> 淸沙浦유적 찌르개형 격지
(Point type flake, 泥岩, 52×44×14mm)

<실측 1-2> 淸沙浦유적 몸돌 (Core, 泥岩, 98×75×45mm)

<실측 2-1> 淸沙浦유적 톱니날
(Denticulate, 암질미상, 71×63×16mm)

<실측 2-2> 淸沙浦유적 돌날격지
(Lame, 泥岩, 80×39×22mm)

<실측 3-1> 中洞유적 도끼날 타제석기
(Axe type chopping-tool, 泥岩, 104×82×52mm)

<실측 3-2> 中洞유적 좀돌날몸돌
(Micro-blade core, 泥岩, 49×31×17mm)

<실측 3-3> 中洞유적 모서리형 새기개
(Burin d'angle, 泥岩, 54×30×9mm)

<실측 3-4> 中洞유적 돌날밀개
(Grattoir sur lame, 암질미상, 71×63×16mm)

<실측 3-5> 中洞유적 양면대칭형 뚜르개
(Bifacial point or drill, 泥岩, 66×40×20mm)

<실측 3-6> 中洞유적 주걱형 톱니날석기
(Denticulate, Spatula form, 115×58×19mm)

<실측 3-7> 中洞유적 方形 격지유물
(Retouched flake, 泥岩, 114×106×30mm)